

이야기는 영혼이 아니라 육체다 : 인물

- 모든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인물의 이야기’이다 : ‘문제적 인물’에서 시작함
- 이야기의 영혼은 반드시 육체, 인물을 통해서 발현된다(incarnation)
- 매력적인 인물은 계속해서 독자/관객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한 ‘현재’를 산다
- 미완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완성된 인물(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 훌륭한 주인공의 요건과 면모
- 의지력이 강하고 의식적 욕망을 지닌다 : 욕망 + 위험 + 발견
- 호감의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⑤ 「택시운전사」 : 우리도 그때 만섭처럼 윤택할 수 있을까?
- ⑤ 「혼자 사는 사람들」 : 외로움에 무감해진 비대면형 인간
- ⑤ 「컨택트」 : 운명을 거스르는 선택과 운명을 따르는 선택 중 무엇이 더 인간적인가?
- 수용자가 주인공의 깊은 내면 속에서 자신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간적 특성을 발견하게 한다 : 주인공과 독자/관객의 관계는 심리적 연결 상태(‘뒤 봐줄 사람’)로 설정 ⇒ “저 자는 꼭 나 같은 인간이다. 저 자가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자의 입장이라면 나 역시 원했을 테니까...” ⇒ 독자/관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욕망을 정당화하게끔 만든다
- ⑤ 「콘크리트 유토피아」 : 우리가 동조하는 쪽은 선인이 아니라 욕망하는 사람이다
- 낮은 인물은 인물과 낮은 인물 중 누구에게 더 끌리는가?
- ⑤ 맥베드와 아저씨(원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페스티벌」의 변태 인물들
- 서사물의 역사는 곧 인물의 신분이 낮아지는 과정이다 : 신화(신)→서사시(영웅)→로망스(기사와 숙녀)→소설(평범한 사람)
- 당대의 가치체계를 배반하거나 갈등하는 반영웅 혹은 문제적 인간
- ⑤ 「내부자들」, 깡패 같은 공권력과 정의로운 깡패의 대결
- ⑤ 「위플래쉬」의 플래처, 악랄한 사디스트인가, 탁월한 교사인가?
- 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 착취되는 존재로서의 자연(환경)과 여성, 약자의 반격
- 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 일관된 신념을 위해 분투하는 문제적 악인
- ⑤ 「소공녀」의 미소, 호방한 홈리스 혹은 유랑하는 여행자의 탄생
- 아리스토텔레스의 인물 : 어떤 과실 때문에 불행해진 인물,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우리처럼 착하게 살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삶은 행복에서 불행으로 나아간다
- 인물은 항상 첨예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한다 : 자신의 선택한 삶과 선택하지 않은 삶 간의 싸움이다, 선택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 ⑤ 「소피의 선택」의 딜레마 상황. 아들과 딸 중 누구를 가스실로 보낼 것인가?
- 인물의 겉과 속이 다를 때, 의외의 선택을 할 때 재미를 준다 : “얼굴에서 보이는 사람과 그의 가슴 속에 들어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10차원적인 인간, 불멸의 캐릭터 햄릿
- ⑤ 「태양은 외로워(일식)」의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인간 본성
- ⑤ 「아사코」, 나쁜 짓을 해 봐야 더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다
- ⑤ 「잠」, 믿음과 불신 사이, 무시무시한 적과의 동침
- ⑤ 「올드보이」의 오대수, 사소한 과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형 오이디푸스
- 주인공과 타 인물들의 역학 관계
- 인력과 척력의 인물 관계 : 주인공은 태양, 조연은 행성, 단역은 위성들

㉔ 「터미네이터」와 「블레이드 러너」의 매력적인 조연, 「과묘」의 오컬트 4인조

㉕ 「하녀」의 늙은 하녀 병식 : 하녀의 시대의 대중과 가장 닮은 냉소적 주체

21세기 노동의 특징으로 정보화와 함께 정동화와 여성화를 꼽는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인구가 늘어나고, 공백이 된 가사노동은 임노동화된다. 세계화에 의해 양산된 이주노동자들이 '전 지구적 하녀들'로 그 자리를 맡고, 그녀의 아이들은 다시 '본국의 하녀들'이 키운다. 돌봄 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젠더불평등이 여전한 가운데 가속되는 세계화로 '하녀노동'은 과거의 것이 아닌 지구적 보편성을 지닌 현재의 노동형태가 된다. 21세기 한국사회, 노동계급에 대한 복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고용은 비정규화되고, 부는 부동산과 교육을 매개로 세습된다. 이제 다시, 화두는 '계급'이다!

㉖ 「공작」: 당신이 어둠의 심연을 바라보면 어둠도 당신을 바라본다

· 영화 인물은 감독과 배우에 의해서 두 번 해석된다 : 배우에 의한 2차적인 캐릭터 해석

㉗ 「아이 캔 스피크」: '위안부'라는 집단적 말하기와 배우들

㉘ 「미션 임파서블, 레드 레코닝」: 아날로그 인간 대표 탐 크루즈와 인공지능 대표 NTT

㉙ 절대 악인의 탄생 : 「황해」의 살인기계 면정학과 김윤석, 「염력」의 한없이 상냥한 자본주의자 정유미, 「발레리나」와 「길복순」의 여전사 전종서와 전도연

㉚ <나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그랜토리노」: 허구적 인물과 실제 배우의 특별한 긴장

㉛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헬조선의 성실한 앨리스, '이정현'이라는 배우의 얼굴

영화는 실재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진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얼굴이라는 스펙터클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은 뒤뜰에 세워진 그랜토리노만큼이나 단단하게 굳어 있다. 그가 강단을 향해 "네 얼굴에 구멍을 뚫어버린 다음 집에 가서 편히 잘 거야"라고 말할 때조차 "한판 해볼까"(Make My Day)라고 하던 해리처럼 이글거리지 않는다. 이스트우드의 얼굴은 러시모어산의 조각에 가깝다. 굳건한 기념비다. 그런 얼굴을 하고서 이스트우드는 내일을 은유한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 그 옛날 미국의 이상처럼, 모든 인종은 모든 인종에게 가슴을 열 것이다. 그랜토리노의 351마력 엔진은 심장을 울린다.

· 인물 창조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의 '전형'

· 전형 : 구체적인 인간들의 모습에서 노출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면 포착, 사회와 인간 본질과 법칙의 측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개성을 잃지 않는 인간성도 집약

· 사회적 초상과 개인적 초상을 견비, 과거/현재/미래를 통합하는 불멸의 존재

· 전형에서 벗어나는 전형적 인물도 존재한다 : 괴짜적 전형, 「세기말의 사랑」의 장애여성

㉜ 「결캅스」와 「야구소녀」, 성별 바꾸기만으로 달라지는 많은 것들

㉝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피로와 권태에 찌들어 인생을 망친 스파이들

㉞ <반려빛>, 불황의 시대를 사는 청년 전형, 빛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㉟ 문제투성이 가족 :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 오한기 <나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의인법』, 현대문학)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는 잘빠진 서부의 영웅이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멋이 났 강력계 형사였다. 아카데미를 휩쓴 영화감독이었으며 모범적인 공화당원이기도 했다. 1986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카멜시 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한 뒤 미련 없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여러모로 완벽한 남자였다.

영화에서 드러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세계관은 고전적이다. 그가 만든 영화뿐만 아니라 짧은 시절에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황야의 무법자>에서 그는 권총 한 자루를 들고 특유의 무정부주의적인 태도로 약자를 위해 타락한 공권력과 싸우고 악인을 처단한다. 자신이 믿는 가치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감동은 여기에서 온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처음 관리실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가 한국전쟁에 관한 영화를 찍기 위해 답사를 왔거나, 부인 몰래 한국인 유학생과 밀애를 즐기다 이곳까지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나는 단번에 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것을 알아챘다. 수많은 여자들을 유혹한 그를 어찌 못 알아볼 수 있겠나.

“방 있나?”

그가 특유의 가래 끓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알아 본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돈만 있다면요.”

내가 답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에게 실망했다. 그는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 볼품없었다. 노년의 멋을 풍기는 것도 아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온몸에 주름이 가득했으니 말이다.

“나잇값을 해야지.”

여자가 악을 썼다. 그러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허리춤에 찬 총을 여자에게 겨누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벌벌 떨기 시작했다. 화면 속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정의를 위해 악당을 벌하고 있었고, 현실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빈총으로 여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숙부가 죽었다. 장례를 치르고 와보니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사라지고 없었다. 관리실의 자물쇠는 부서져 있었고 얼마간의 돈도 사라진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쪽지가 하나 남아 있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쪽지에 지난번에는 얼마 말하지 못해 아쉬웠으며 내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꼽아 놓았다. 몇 마디는 새겨들을 만했지만 대부분 헛소리였다. 그다음에는 급한 일이 생겨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됐다면서 돈을 조금만 켜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텍사스를 방문하면 창작에 몰두할 만한 작업실을 알아봐줄 뿐만 아니라 신선한 우유와 스테이크를 대접하겠다고 덧붙여 쓰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일 밤 어스틴 시청 부근에 있는 ‘올드 텍사스’란 펍에 있을 테니 언제든지 와서 자신을 찾으라고 말했다.

텍사스에 도착한 뒤 며칠간은 관광을 했다. 첫 행선지는 독립전쟁의 격전지 알라모였다. 독립전쟁 당시 군복을 입은 노인들이 이목을 끌었지만 박물관의 전시된 박제처럼 생동감이 없어서 사진을 한두 번 찍으니 금세 흥미가 떨어졌다. 이튿날에는 리오그란테에 다녀왔다.

리오그란테에는 급류타기를 하러 온 관광객들과 특산품을 팔고 있는 메스티소 인디언들이 들끓었다. 쇼핑물을 방불케 할 만큼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나는 리오그란테의 풍경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쫓기듯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에는 샌안토니오 관광 목장 근처 사막에 갔다. 사막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모래는 한 줌도 안 돼 보였다. 사막 한쪽에는 영화 촬영이 한창이었다. 가이드는 서부극을 촬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대한 카메라와 장비들만 보일 뿐 배우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서 한국에서 그 영화를 봤지만 이건 거의 서부극에 대한 반란이었다. 여린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 나는 밤마다 ‘올드 텍사스’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텍사스에서 글이 안 써지는 건 마찬가지라고 따져 묻고 싶었던 건지 단지 외로워서 그랬던 건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다만 ‘올드 텍사스’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건 확실히 기억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를 또 기만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내에는 온통 호텔과 카지노와 클럽뿐이었다. 광활한 사막은 콘크리트로 메워진 상태였고 현지인들은 한없이 친절했으며 경찰들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챙기느라 과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소떼 대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차도를 오갔고 매춘도 합법이어서 돈만 있으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말과 달리 텍사스도 숙부의 펜션만큼이나 심심하고 잔인하리만치 쾌적한 공간이었다. 내 상상의 텍사스는 무법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정의와 영웅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텍사스에 영웅은 필요 없었다. 내가 아는 텍사스는 없었다.

“텍사스는 내가 있을 곳도 아니지만 흑인이 설치는 곳도 아니지.”

내가 대꾸했다. 흑인이 내 먹살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켰다. 나도 지지 않고 그에게 덤벼들었다. 우리는 얼마간 설전을 벌였다. 그러던 중 그가 주먹을 치켜들었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별안간 사위가 고요해졌다. 나는 눈을 슬며시 떴다. 누군가 흑인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이봐, 애송이. 그 손 놓게. 내 친구라네.”

가래 섞인 목소리,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악당과 기나긴 추격전을 마치고 온 듯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고단한 표정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뒤 나를 보곤 활짝 웃었다. “어때? 여기가 텍사스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 김지연 <반려빛> (『2024 제1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정현은 다 때려치우고 싶다거나 죽고 싶다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저건 다 갚고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죽으면 어차피 다 끝인데 그걸 왜 굳이 다 갚겠다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현은 빚진 것 없이 깨끗하게 죽고 싶었다. 자신의 부채를 혈연들에게 떠넘기고 싶지도 않았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상속포기를 하면 그만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정현의 속사정을 낱알이 보게 되는 것이 싫었다. 늘 저거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은 하고 살라나,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변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빚이 1억 6천이나 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됐다. 다른 가족들보다 장수를 하든가 변변한 사람으로 죽기 위해 빚을 다 갚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만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죄로 과로하며 살고 있으니 장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았고 살아 있는 동안 빚을

다 갚는 수밖에 없었다.

빛이야말로 정현이 잘 돌보고 보살피 임종에 이르는 순간까지 지켜보아야 할 그 무엇이었다. 빛 역시 앞으로 수년간은 정현의 옆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머무를 것이고, 정현이 죽었나 살았나 그 누구보다도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빛이야말로 정현의 반려였다.

그날 밤 꿈에 정현은 반려빛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목줄을 권 쪽이 반려빛이었던 것이 좀 다르긴 했지만 개와 산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했다. 정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이 말라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어져 반려빛에게 던지시 말을 건넸다. 카페에 잠깐 들르까? 반려빛은 정현이 꽤 가엽다는 듯이, 그러나 목줄을 권 자로서 단호해야만 한다는 듯이 줄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집에 커피믹스 있잖아. 정현은 카페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꽤 오래 끄끙거렸지만 별도리가 없었다. 정현은 끄끙대다 잠에서 깬고 깬 뒤에도 꿈속의 기분이 그대로 남아 좀 찝찝해졌다. 온몸이 뜨겁고 얼굴도 화끈거리려 전기장판의 전원을 켰다. 꿈인데. 꿈에서만이라도 좀 맘대로 먹게 해주지. 왜 원하는 것을 주장하지도 못했을까. 정현은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다.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정현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한없이 작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부피도 질량도 거의 없다시피 한 아주 작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반려빛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 역시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듯 정현은 자신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꿈결에 생각했다.

어느 달엔가 정현은 나가야 할 돈이 13만 원 정도 부족했다.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미안하다며 월급이 한 달 늦겠다고 고지한 달이었다. 그 말에 정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퇴근하자마자 이직할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이력서도 여기저기 넣었지만 당장 취직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한 달의 구멍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아무리 긁어모아도 13만 원이 부족했다. 누군가에게 20만 원쯤은 빌릴 수도 있었다. 정현도 회사 동료에게 1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동료에게 부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도 이번 달 월급을 받지 못할 테니 사정이 어떨지 알 수 없었다. 아니면 선주에게 부탁을 해도 됐다. 선주가 아니더라도 정현을 가엾게 여기는 친구가 몇몇 있었다. 어쩌면 그 때문에…… 자신을 가엾게 보는 시선을 견디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부탁하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손을 빌릴 수도 없었다. 아들 둘을 키우며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면서 사는 언니는 늘 돈 나갈 데가 많아 종종 정현에게 돈을 꾸 수 없을지 묻곤 했으니까. 부모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채무 상황을 전부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꺼내기가 꺼려졌다. 그러느라 더 일을 키우게 되는지도 몰랐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누구에게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부탁을 해볼까 싶다가도 뭐라 운을 떼야 좋을지를 알 수 없어서 정현은 집에 있는 물건 중 돈 될 만한 것이 없나 뒤져보았다. 뭐든 팔아서 13만 원 정도는 만들어야 했다. 인터넷 중고 서점에 책이라도 팔려고 했는데 정현이 가진 거의 모든 책은 중고 서점에서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현은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은 죄다 이렇게 똥값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했어. 나는 이제 사람도 잘 못 믿고 의심부터 해. 똥통수 치고 도망가지 않을까 하고.”

돈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애써 믿을 수 있었다. 착실히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도 하면서 어떻게든, 얼마가 걸리든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만 했다. 약속대로 서일이 갚아 줄 거라는 기대도 완전히 버리진 못하고 있었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 문제는 자신의 세계가 변해버린 것이다. 전에는 친구가 될 수 있을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도통 못 믿을 사람들로 가득해졌다. 정현은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더 잘된 것일까? 이제 더는 뒤통수 맞는 역할에 빠지진 않을 테니까.

“나는 네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 다 망했다니까 된 소리야.”

“아니야. 너 하나도 안 망했어.”

정현은 자신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는지를 이야기했다.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해나갈수록 정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여자가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정현은 어느 순간 그녀와 눈이 맞았고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떨렸다. 이런 망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몰랐으면 했다. 아주 멍청한 일을 저질러버린 것만 같아서 자신의 멍청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누가 그래, 네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건 여기저기 소문을 많이 낼수록 빨리 해결되는 거야. 선주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현의 생각에 이 일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제도도 없었다. 그래도 모든 걸 다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정현은 자신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맘 편히 털어놓을 사람이 서일뿐이라는 점에 조금 서글퍼졌다. 서일은 정현이 겪은 모든 일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다 이해해 주는 것만 같았다.

정현이 빗을 다 갚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에 반려빛이 나왔다. 반려빛은 정현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거실로 나와보라고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말 연속극을 보던 반려빛은 정현이 방에서 나오자 TV를 껐다. 정현은 우리 집에 소파나 TV가 있었나? 잠시 의문에 빠졌다. 하지만 꿈이었으므로 없던 것이 있는 것도, 있던 것이 없는 것도 다 용인되었다. 반려빛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태연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반려빛은 정현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정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말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을 수 있는 꿈이라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됐다.

우린 진작 헤어졌잖아.

반려빛은 잠시 정현의 말을 곰곰 생각해보는 듯했다.

참, 그랬지.

반려빛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코트 깃을 세우고 현관에 서서 정현과 작별 인사를 했다. 반려빛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정현을 떠났다. 정현 역시 현관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칸장에서 소금을 꺼내 와 현관 밖에 팍팍 뿌렸고 문이 닫히자마자 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갔다. 다시는 열쇠도 못 하도록. 꿈속에서 정현은 마냥 홀가분했고 깨어서도 그랬다. 마침내 0이 된 기분. 정현은 그 이상을 바라는 것도 이상하게 무섭기만 해서 그저 0인 채로 오래 있고 싶었다

□ 엘케 하이텐라이히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세상을 등지고 사랑을 할 때』, 이레)

엄마와는 일생에 한 번, 단 한 번 같이 여행을 했었다. 엄마는 여든을 넘기고도 여전히 등을 똑바로 세우고 걸었고 생기를 잃지도 않았다. 반면 나는 마흔다섯을 넘기면서 종종 등뼈에 통증을 느꼈고, 나 자신을 이미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늙은이로 여겼으며, 내 삶은 늘 뒤죽박죽 못마땅하고 뒷골 당기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엄만 독일 남부 소도시에서 늘 깔끔함이 넘치도록 집 안을 잘 가꿨고, 북부 대도시에서 있는 내가 사는 집은 그저 어지럽고 어수선하기만 했다. 나는 엄마의 나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엄마를 찾는 횟수를 늘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피할 도리 없는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서로를 잘 이해하진 못하는 사이였으니까. 나는 그저 엄마가 어찌면 날 필요로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나이가 되면 몸의 기력은 쇠하고, 괜히 초조해지고 뭐든지 쉽게 까먹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두서너 달에 한 번씩은 꼭 엄마를 찾아가 엄마 대신 동사무소 일을 봐주거나, 차를 몰고 나가 필요한 물품을 잔뜩 사 들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커튼을 떼어 빨았다. 봄이면 발코니에 화초를 심기도 하고, 가을이면 시든 화초를 뽑아내고 빈 화분을 지하실로 옮겨놓았다. 그건 분명 외동딸로서 느끼는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지 애뜻한 사랑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뭐든 잘 까먹어버리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나인 것만 같았다. 엄마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커튼을 달려고 깡깡대는 나를 못마땅한 듯 비쳐보며 나무라기만 했다.

“손때가 묻어 커튼이 다시 더러워졌어.”

엄마는 내가 진달래 나무의 가지치기를 잘못해져 모양을 다 망쳐버렸다고 했다. 단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단 말을 하지 않았고, 잘했다는 칭찬 같은 건 입에 담을 줄 몰랐다. 엄마는 늘 그랬다.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 사이에는 서로를 칭찬하는 일 같은 건 없었다.

“그 정도면 됐다!” 이것이 엄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찬사였다. 어릴 적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에도 똑같았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점점 네 아빠를 빼닮아가고 있어.”

마침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지역에 이르면 우리의 대화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이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야만 했다. 아빠가 죽은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엄마가 아빠에게 느끼는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는 그 분노를 나에게 부어댔다. 엄마가 늘 말했듯이 나에게는 아빠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이 유전되었고, 그것은 엄마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 아빠와 함께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아빠처럼 그렇게 계속 살다간 제대로 늙기도 전에 죽고 말 거다.”(중략)

“네 주위엔 정말 바람 잘 일이 없구나. 그것도 네 아버지랑 똑같아.”

“사랑은 완공되지 못할 공사 현장과 같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하자,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진정한 사랑은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거야. 나에게도 그랬어.”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더구나 밀라노라니! 나는 지금 플로라를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닌가. 아담한 체구에 에너지 넘치는 엄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태세로 날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날 데려가줘, 이탈리아. 그건 정말 내가 바라는 선물이야. 게다가 이번 생일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잖니.”

그런 얘기는 벌써 20년 전부터 들어왔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내 생애 마지막이 될 거다, 다음 번 생일은 살아서 챙기지 못할 것 같다,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다.’

코에서 약간의 콧물이 흐르기만 해도 엄마가 즐겨 쓰던 표현이 있다.

‘오늘 하루로 내 인생도 끝나나 보다.’

그 모든 말들은 날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몸 상태가 좀 나아지거나, 크리스마스, 부활절, 생일이 지나가고 나면 엄마는 다시 생기를 찾았다. 엄마는 갈색 대신 검정 밍크코트를 사길 잘했던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야 내 장례식에 와 한껏 뽐낼 수 있으니까. 정말로 엄마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이런, 내가 엄마 대신 밍크코트를 걸치고 가야겠지.

“장거리라 너무 힘들 거예요.”

엄마와 같이 가는 여행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네가 건디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어. 밀라노! 가보면 정말 근사할 거야.”

“카를라는 강했어. 자신이 원하는 걸 잘 알았지. 카를라가 없었다면 난 전쟁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엄마는 와인 한 모금을 들이키며 나를 쳐다봤다.

“너도 마찬가지로. 카를라 고모가 없었다면 넌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

엄마의 눈빛이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엄마의 비밀을, 우리 사이에 놓인 숨겨진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만 같았다. 엄마는 덧붙여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다. 날 쳐다보지도 않고 뺨 조각을 누르며 말을 이었다.

“난 아기를 원치 않았어. 누가 전쟁 중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겠어. 카를라는 그때 낙태를 했지. 나도 임신 5개월이 될 때까지 온갖 시도를 했어. 몸속에 비눗물을 집어넣기도 했고, 카를라가 뜨개바늘로 후비기도 했어. 벽돌을 안은 채 식탁에서 몸을 날려도 봤지. 근데 다 소용 없었어. 넌 지워지지 않더라. 죽어도 살겠다고 했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수천 장의 그림이 머릿속에 지나갔다. 수백만 개의 질문, 그리고 눈물, 내 영혼의 눈물이 바다처럼 넘쳐흘렀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온몸에 동시에 번지는 듯했다. 살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살아 있다는 안도감.

“우린 모두 확신했어. 넌 몸 한구석이 성치 않을 거라 했지. 하지만 넌 무척 건강했다. 카를라가 널 받아줬어. 부엌에서 말이야.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 틈에. 다른 사람들은 방공호로 피신해 있었는데, 우리 둘만 부엌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었어. 깨진 유리창 조각이 사방에 날리는 통에 네가 세상으로 나왔지. 믿을 수 없게도 넌 정말 건강했다. 우린 너무 기뻐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 카를라와 나, 둘이서 말이야.”

공항에서 플로라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플로라의 얼굴에선 빛이 났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서 확연히 돋보이고 있었다. 내 곁에 서서 안전부절못하던 엄마도 단번에 플로라를 알아보았다.

“저기 왔구나.”

“어떻게 알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보여. 널 쳐다보는 얼굴에서 빛이 나.”

나는 엄마가 한 말이 무척 신경 쓰였다. 엄마가 그때 나와 플로라의 관계를 첫눈에 알아

보았던 걸 한참 뒤에 가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는 우리 관계를 바로 알아버렸지만 마음에 들어 했다.

‘니나만 볼 것.’

봉투는 접착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어서 가위를 사용해야만 했다. 나는 편지에 적혀 있을 내용이 무엇일까 두려워졌다. 엄마의 일생일대 단 하나의 비밀이 적혀 있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

봉투 속엔 낡아서 너털거리는 흑백사진 네 장이 들어 있었다. 카를라 고모와 엄마의 사진이었다. 엄마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엄마가 비단에 싼 채로 잘 보관하던 옷이었다. 나는 엄마가 그 옷을 직접 걸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약간 탈색이 되긴 했지만 너무 예뻐서 다른 옷가지들과 함께 처분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사진을 통해 엄마가 그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두 번째 사진 속엔 담배를 피우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다. 난 엄마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 곁에는 한 팔로 엄마를 감싸 안은 채 담배를 피우는 카를라 고모가 있었다. 카를라 고모는 셔츠에 넥타이를 맨 채로 남자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껴안고 있었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전쟁이 한참이던 때. 분명 파울라 고모가 이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유모차도 보였다. 아마 그 안에는 어린 내가 잠들어 있었겠지. 엄마와 카를라 고모가 전쟁 중에 함께 살았다던 집임에 틀림없다. 벽에 걸린 정물화도 눈에 익은 것이었다. 언젠가 우리 집에 걸린 적이 있었으니까. 라디오 위에 놓인 진짜 상아가 달린 목각 코끼리도 보인다. 지금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코끼리이다.

세 번째 사진에서 엄마는 소녀처럼 앳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카를라 고모는 팔걸이에 걸터앉아 한 손을 엄마 어깨 위에 얹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을 맞추고 있었다. 네 번째 사진에서는 엄마와 카를라 고모가 깊숙하게 키스를 하고 있었다. 두 눈을 모두 감은 채.

나는 순간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뒷면에는 흑갈색 잉크빛이 바랜 우아한 엄마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1940~1945년, 카를라와 함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